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못 하는 일과 안 하는 일

일이란 어떤 사물에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변화를 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을 말한다.

할 일을 보고 "나는 못 해"와 "나는 안 해"는 차원이 다르다. 전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뜻하고, 후자는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핑계를 대어 미루고 안 하는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다.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자율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일하는 보람에 사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할 일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일차로 창출이 되고 직업이

되어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야 할 일이면서 못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못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신경을 쓰거나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매달려야 한다. 할 일을 두고도 핑계를 내어 미루거나 못하는 일로 결정해 안 하는 사람이거나 공직자는 그 직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공직자는 자기의 업무에 따른 일감이 주어지는데 그 일을 하면 고되므로 그 일을 피하려고 못하는 일로 만들어 안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일로 만들어 안 하는 공직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월급제 직장인이나 공직자는 맡은 일을 핑계를 내어 못 하는 일로 만들지 말고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며 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는 부정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이고 하는 일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자세를 말한다.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 경비를 절약하고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인류문명의 발달은 일을 찾아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유산으로 발달해왔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며 할 일을 찾아야 하며 그 일을 못 하는 일인가 안 하는 일인가를 분별해서 안 하는 일이라면 서둘러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할 일을 찾아야 하며 그 일을 못 하는 일인가 안 하는 일인가를 분별해서 실천하는 유능한 실천 인이 되어야 성공한다.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은 무엇인가의 할 일에 몰두하고 있는 때다. 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회사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남자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다. 남편을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

하는 아내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보다 아름답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책을 읽는 학생은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은 느낄 수 없다.

회사에서 실직(失職)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더욱 괴로워한다. 실직으로 수입이 없어 생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 황금으로 만든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함꼰 하면 그곳에서 광명이 발견된다.'라는 좌우명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는 부(富)와 명성을 얻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주물러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성불(成佛)은 수도(修道)라는 일을 통해 이뤄지고 수확의 기쁨은 밭 가는 노동을 통해 이뤄진다. 땀 흘리는 사람에게만 성공의 열매를 딸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신성한 한해의 시간에 선택한 직업에서 주어진 업무에 안 하는 일이 없이 창의력을 발휘해 일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면서 소득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기고

국내 테러 불법무기 은닉 위험성에서 벗어나자

현대사회에 각종 범죄가 다양화되면서 범행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 또한 천차만별이다. 휴대가 가능한 작은 흉기에서부터 사제 총기와 폭발물류 등이 전세계적으로 범죠휘장에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런던 지하철 테러 및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이제는 각종 테러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테러 조직이나 중동 반군에게 무기를 극비리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는데 작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공항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박격포탄이 북한에서 제조된 포탄과 일치한다는 유엔 산하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테러 발생에도 부차적으로 불법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법 무기에 의한 테러 및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마침 경찰에서는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본 지면을 통해 신고 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

이 소지하거나 허가 취소된 총기류 및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일체의 불법 무기류가 해당된다. 이 기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자진신고할 경우 불법 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소지 경위 등을 일체 묻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받게 된다.

만약 위에 열거한 불법 무기류를 현재 소지하고 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자진신고 기간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경찰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통상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연중 불법무기 집중 단속에 들어가 처벌이 가해지는 만큼 이번 신고기간을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 불법 무기는 인명을 살상할 위험성이 큰 만큼 적발될 경우 처벌도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소지한 총기를 가지고 있다.

판속에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하다. 불법 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법 무기 자진신고 제도에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생동감 넘치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광양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년) 봄철(3~5월)에 21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주거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는 4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20%를 차지했다.

위의 통계를 보면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전에 지은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뒤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

간(2014~2020)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발생률은 약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약 44%로 주택의 사망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2012년 2월)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해 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56%, 2020년 62%이며,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 이상 달성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기준은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1만 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며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집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점종중인 코로나 백신처럼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이다.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이재민/광양소방서중대119안전센터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